

■ 실속 재테크

'노란우산공제'

폐업시 재기 자금…자영업자 후원 든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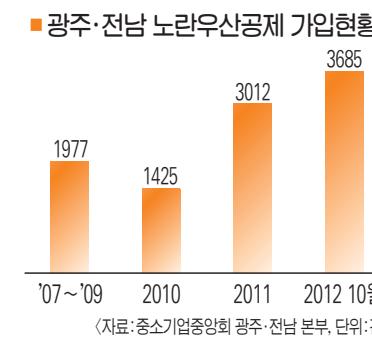
보험금 최고 150배 年 300만원 소득공제

납입 1년이면 무담보 대출…가입 20만 돌파

#.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안 모씨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8년 10월. 폐업 했을 경우 퇴직금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고 매월 25만원씩 납부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점점 떨어지자 올해 결국 폐업을 했고 공제금으로 150만원을 받게 됐다. 안씨는 이 돈을 노후자금으로 쓸지 새 사업을 해볼지 고민 중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사업자를 돋기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의 인기는 '부도 공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5



만~70만원)을 납입하다 폐업·고령(만 60세 이상)·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접게 되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금을 복돈으로 즉시 지급받는 제도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제금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나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쓰일 수 있

기 때문이다.

부가지원도 다양하다.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월 납입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연금 보험상품처럼 복리이자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운용수익비는 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영수익비를 공제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상품과 비교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 상당의 연복리 이자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또 납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稅)테크 상품으로도 좋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다. /박정욱기자·이은미기자 jwpark@



한국은행, 지난 7월에 전산사고

한국은행에서 연이어 전산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산오류로 하루 약 207조원의 결제를 책임지는 한은 금융망의 수신업무 일부가 장중에도 시작을 못 하는가 하면 국채에 불는 이자는 못 줄 뻔 했다.

2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4일 한은금 융망(BOK-Wire+)의 일부 업무에 장애가 생겼다. 오전 9시 시장이 열려 한은금융망 업무도 시작해야 했지만, 간밤에 업무 프로그램 수정 작업이

부실한 탓에 서버를 통한 수신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증권사 등 133개 기관이 참여해 하루 평균 206조 8000억원을 거래했다. 한은금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등록된 금융기관 간 거래 거래는 '일시정지' 된다. 결제가 계속 미뤄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불안정성을 일으킨다. 이런 상황은 20분간 지속했다.

한은은 결국 복구를 마친 9시20분에서야 서버 업무를 개시한다는 전문을 각 금융기관에 수동으로 보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등록금 이벤트 당첨자 발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012년도 2학기 KJB 등록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당첨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 전달한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등록금 이벤트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별 거래 영업점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명은 각 100만원의 장학금 행운을 받게 됐다. 3등 10명에게는 각 50만원, 행운상으로는 100명에게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5만원)이 전달된다.

당첨 확인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 등록금 이벤트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별 거래 영업점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

운동화 끈 와이어로 간편하게

24일 (주)광주신세계 6층 K2 매장에서

직원들이 신발 대신 특수 와이어를 사용한 오메가 등산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 등산화는 신발끈 대신 얇은 와이어와 둥근 다이얼을 사용해 간편하게 등산화를 신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미세한 소리와 주변의 소음을 인식해 인공지능으로 자동 불륨 조절을 한다. 시끄러운 소리는 작게 들리고 작은 대화 소리는 큰 소리로 들리는 등 자동으로 인식해 소리를 조절해 준다.

소리샘(대표 정봉승 www.soriseam.co.kr)이 사람의 목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원음으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보청기를 선보였다.

미국의 마이크로테크 사 및 스타키 사와 제휴를 맺고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기존 아날로그 보청기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음을 잡아냈다.

손가락보다 작은 디지털 칩으로

동차 공장의 건설 입지를 광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입 및 지상물 보상 등 일체의 업무를 추진위와 광주시가 책임지고 대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추진위 측은 어떠한 협상과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자동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였으므로 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1966년 5월 23일 박인현(朴仁天)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노인환(魯麟煥) 광주시장 명의의 각서를 이문환 사장에게 전달했다.

각서 내용은 광천동과 상무동 일대를 공단으로 지정하고 공장 건설용지 30만평(99만㎡)의 매입과 지상물 보상은 추진위와 광주상의가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책임지고 대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아시아족이 원하는 땅을 아시아 측이 원하는 값에 넘겨주되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주들과의 분쟁이나 행정적 법적 절차 등은 물론 예정지 안에 들어서 있는 공장들에 대한 지상물 보상 등 잡다한 문제를 추진위와 광주시가 도맡는다는 것이 그 골자다.

당시 지역민들의 자동차공장 유치의 열망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해 한다.(참조 광주상공회의소 40년사, 계간 광주상의 필자 연재 '지역경제운동사' 1988 신년호 봄호 여름호)

위종
(언론인)

박前대통령 공장 광주유치 약속

광주전 지역경제 운동사 <29>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⑤

아시아가 원하는 땅 원하는 값에 사주기로

▶프랑스총과 차관 및 기술정

주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아시아자동차의 유치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64년 12월 21일 아시아자동차가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의 프랑스 현지 생산 판매사인 싱카(SIMCA)사 및 시아베(STAVE)은행과 차관협정에 관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이로부터 두달 뒤인 1965년 2월에는 싱카사의 조사단이 광주시 광천동과 광산군 평동면, 나주군 노안면 등 건설 예정지를 실사했으며, 8월 23일에는 프랑스의 싱카사와 건설회사인 세리(SERI)사, 시아베 은행 등 대표단 일행이 내광, 아시아자동차 차와 차관 및 특허권에 관한 기술 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8개월 뒤인 1966년 4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날 전남 도청에 들린 박 대통령은 광주상공회의소의 견의를 받아들여 이 고장의 숙원사업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광주 유치를 확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당장 시급한 것이 공장 건설을 위한 공업단지의 입지와 규모의 확정이었다. 공장 유치 추진위는 1966년 5월 3일 광

각서 내용은 광천동과 상무동 일대를 공단으로 지정하고 공장 건설용지 30만평(99만㎡)의 매입과 지상물 보상은 추진위와 광주상의가 광주시의 협조를 얻어 책임지고 대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날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광주상공회의소는 5월 10일 김행수(金幸洙)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에게 광주공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도 평가를 의뢰했으며 18일에는 건설부와 한국전력, 철도청 등 관계 기관의 기술진 5인으로 구성된 광주공업단지 종합조사단이 광주시 광천동, 광산군 평동면, 나주군 노안면 등 후보지를 답사했다.

▶광주공단 건설추진위 발족
광주상공회의소는 공단 후보지의 확정과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기존 아시아자동차유치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5월 20일 광주상공회의소의 견의를 받아들여 이 고장의 숙원사업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광주 유치를 확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당장 시급한 것이 공장 건설을 위한 공업단지의 입지와 규모의 확정이었다. 공장 유치 추진위는 1966년 5월 3일 광

각서 내용은 광주상공회의소는 공단 후보지의 확정과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기존 아시아자동차유치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5월 20일 광주상공회의소의 견의를 받아들여 이 고장의 숙원사업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의 광주 유치를 확약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당장 시급한 것이 공장 건설을 위한 공업단지의 입지와 규모의 확정이었다. 공장 유치 추진위는 1966년 5월 3일 광

사람 목소리·자연의 소리 '원음 그대로'

소리샘 보청기 출시



소리샘(대표 정봉승 www.soriseam.co.kr)이 사람의 목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원음으로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보청기를 선보였다.

미국의 마이크로테크 사 및 스타키 사와 제휴를 맺고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기존 아날로그 보청기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음을 잡아냈다.

전국 42개 소리샘보청기 가맹점은 물론 스타키코리아와 제휴해 전 세계 32개 지사에서도 A/S가 가능하다.

정 대표는 "소리로 세상을 전하고 소리로 희망을 말한다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2-499-73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부회장 김정호

이사 송삼홍
회장 류재선
부회장 김정호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신문사
전기공사공제조합 장학회

이사 주정환
이사 김려옥
이사 양시훈

성우이엔지(주) 이공재
(주)한국종합전기 신동석
(주)세진이엘이시 양부근
(주)미금전력공사 정재성
(주)유달전력 전철영
(주)운경건설 이종근
가람전기 임매남
광신콘트롤(주) 염규일
미래전력개발(주) 강대선
(주)효성전력 문정춘
(주)연성임채성
석교전력 정태운
한솔산전 김재운
동아전기산업(주) 김규종
(주)승광이엔지 최광립
(주)대신전력공사 박육원
(주)국일전력 문병래
(주)청해이엔씨 김태훈
(주)새롬전력 홍기국
(유)남도전기 황봉화
(주)덕인전력 김광길
(주)신창전설 신창수
(유)창진개발 허종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3층(농성동)
☎ 062)364-0220/ FAX : 062)364-0223